

WEF Weekly Stories

2025년 3월 5일, WEF 4차 산업혁명센터, 경기도 대한민국

센터 웹사이트: Koreago.net

*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. (Forum Strories 발간일자 : '25년 2월 28일)

AI와 내일의 산업들



AI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들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다.

- [‘유럽 인공지능 전문 센터\(European Centre for AI Excellence, CAIE\)’가 프랑스 파리에 문을 연다.](#) 이 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의 '4차산업혁명센터(C4IR)'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되며 프랑스의 강력한 연구 생태계와 튼튼한 기술 투자 환경, 역동적인 스타트업 현장을 바탕으로 유럽이 인공지능(AI)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- 세계경제포럼은 [‘지능형 시대의 산업’](#) 시리즈를 통해 인공지능(AI)을 주제로 두 편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. 이 보고서는 [통신](#), [소비재](#), [소매업 및 농업 분야](#)에서 AI의 혁신적인 역할을 다

루며,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활용 방안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.

시사점: 인공지능(AI)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. 하지만 AI의 활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을 둔 유연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.

핵심 포인트:

- 통신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해왔으며 생성형 인공지능(AI)의 상용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.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전략적 접근과 투자,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[통신업계의 과제들을 살펴본다.](#)
- 2025년 다보스 연례 회의에 참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(Anthropic)의 CEO '다리오 아모데이(Dario Amodei)'는 "AI는 100년이 걸릴 과학적 진보를 5년 혹은 10년 만에 성취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 그렇다면, AI 기술이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시점은 얼마나 가까워졌을까? [다보스에 참석한 4명의 전문가들이 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.](#)
- AI 에이전트는 산업별 맞춤형 AI로 국제 무역 분야의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 혁신을 이끌어 낼 기회를 제공한다. [자율적 의사결정과 목표 지향적인 행동 등](#) AI 에이전트가 산업환경에 가져올 변화들을 알아본다.
- AI는 헬스케어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. [AI가 지원하는 수술, 질병 조기 진단 등](#) 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가져온 다섯 가지 혁신을 다룬 영상을 소개한다.

More

관세, 무역, 경제 성장



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관세 정책과 국제 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.

- 더 빠른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혁신, 평등, 지속 가능성, 회복력 등의 관점에서 올바른 성장 역시 중요하다. [2025 다보스 포럼에서 리더들이 논의한 미래 경제 성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.](#)
-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기존의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. 관세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[인포그래픽](#)을 소개한다.
- 유럽의 GDP와 기술 혁신이 다른 지역들에 뒤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을 회복하고 [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](#)을 알아본다.
- 세계경제포럼의 경제 성장과 부흥 및 변혁 책임자(Head of Economic Growth, Revival and Transformation)가 수집한 [주요 경제 이슈와 분석](#)을 살펴본다.

시사점: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. 정부와 기업 간의 더 많은 협력이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

More

지속 가능성과 녹색 기술



자연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4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. 이에 따라 녹색 혁신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.

- 스웨덴의 환경학자인 요한 록스트룀(Johan Rockström)은 "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것"이라고 경고했다. 그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[혁신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격변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](#)이라고 덧붙였다.
-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(SAF, Sustainable Aviation Fuel)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생산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. 세계경제포럼이 경영컨설팅 회사 커니(Kearney)와 함께 발표한 새 연구보고서는 SAF 생산 분야에 최대 4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[10가지 재정적 전략](#)을 제시한다.
- 유럽연합(EU)은 경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. [새로운 방안이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소개한다.](#)

시사점: 파리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은 기후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. 규제의 완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.

핵심 포인트:

- 해운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특히 어려운 분야로 손꼽힌다. E-메탄올이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[아직까지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한계가 있다.](#)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.
- 전 세계에서 매년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, 그중 상당량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. 환경 기술 기업인 '클린 허브(Clean Hub)'는 [폐기물이 실제로 관리 시스템을 거쳤는지 검증할 수 있는 앱](#)을 개발해 플라스틱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있다.
- 전 세계 온실가스의 27%는 건축 환경에서 배출되며 이를 줄이는 것이 탈탄소의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 세계경제포럼의 '글로벌 등대 네트워크(Global Lighthouse Network)'가 건축 환경에서 [지속 가능한 혁신을 보여주는 세가지 사례](#)를 조명한다.

More

4차산업혁명센터 홈페이지



Forum Stories newsletter

Bringing you weekly curated insights and analysis on the global issues that matter.

Subscribe today →